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 1,000례 돌파



강릉아산병원 유창식 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관계자들이 로봇수술 1천례 돌파를 기념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천례를 돌파했다. 2023년 10월 500례를 돌파한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는 1년 4개월 만에 1천례를 넘어서며 강원·영동 지역의 최첨단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총 12명의 전문가가 다빈치 Xi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수술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수술 중 외과가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뇨의학과(35.6%), 산부인과(23.8%)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고 담낭 절제술과 자궁 절제술이 뒤를 따랐다. 한편 강릉아산병원은 로봇수술 1천례를 기념해 4월 15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읍아산병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전용병동 운영



새롭게 문을 연 정읍아산병원 소아외래진료센터.

정읍아산병원이 5월 2일부터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을 본격 운영한다. 정읍아산병원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은 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며 저녁 8시까지 야간진료를 운영한다. 이로써 정읍시를 비롯해 인근 고창군, 부안군 등 서남권 지역에서 365일 주·야간 소아청소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읍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전용병동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정읍아산병원을 지원했다.

보성아산병원 중증환자 상급병원 원스톱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김철우 보성군수와 최병진 보성아산병원장.

보성아산병원은 2월 19일 보성군과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성아산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증환자에게 신속한 전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보성아산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등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올해 응급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성아산병원 등 응급의료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